

## 성서 번역에 대한 언어학의 공헌:

### 어제와 오늘 - 2부

로널드 로스\*

장동수 번역\*\*

#### 1. 비교 문화 의미론

만약 노암 촘스키(1987)가, 우리는 “어떤 경험보다 앞서서 풍부하고 변하지 않는 개념 체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 말이 옳다면, 번역 작업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한 작업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문법과 구문론 영역들에만 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도, 문제는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촘스키도 언어는 흡사한 내재적인 구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구문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원천 언어의 화자와 수용 언어의 화자 모두 동일한 불변의 개념체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동일한 불변의 개념들을 표현하는 원천 언어의 사전적 용어들과 수용 언어의 그것들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대화를 나눠본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이런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료들과 함께 이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던 안나 비르쯔비카(Anna Wierzbicka)는 어떤 개념들은 보편적이거나 거의 그렇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개념들의 수에 있어서는 촘스키의 의견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촘스키는 “사전의 개념적 자료들도 미미한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언어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1987[비르쯔비카가 인용함, 1992:4])고 확인하는 반면, 비르쯔비카는 “언어 간 그리고 문화 간 차이는 미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더 최근 저서에서, **나, 너, 어떤 이, 어떤 것, 원하다, 원하지 않다, 이것, 말하다, 되다, 좋은, 나쁜** 등과 같이 아주 단순한 보편적 어근(語根)어 60가지 사이에는 근접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더벤과 베스푸어에 따르면, 보편적인 의미론적 주요어의 수효는 “거의 100 단어 미만”이다. 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제공되던 유형의 언어학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언어는 단순한 보편적 개념들의 기본 저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더 복잡한 언어 특유의 성좌를 구성하는데, 이것들이 언어간 변종의 원천이 된다.

비르쯔비카는, 1992년 자신의 책, 『의미론, 문화와 인지: 문화 특유의 지형 안에서의 인간의 보편적 개념들』에서 인간 언어의 개념적 다양성을 힘주어 주장하면서 이것을 **영혼, 생각, 마음, 운명, 숙명, 용기, 용맹, 무모함, 두려움, 놀람, 부끄러움, 당황, 겸손, 자긍심** 등과 같은 그 이상의 개념들을 비교하는 케이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sup> 하지만 이것들은 영어로부터 취한 “민속”(folk) 용어들인데, 비르쯔비카는 다른 언어들, 심지어 긴밀하게 연관된 언어들에도, 서로 조화되는 용어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해내기 위하여 그녀는 자기 민족 중심주의의 뒷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사전(辭典) 비교방식 몇 가지가 필요하였다. 분명히 우리는 하우스어(Hausa)로 “수치”라고 어떻게 단순히 질문할 수 없어서 어떤 단어가 주어지든지 간에 “수치”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여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녀는 추정상으로 보편적인 의미론적 어근어들을 모아놓은 자신의 창고에서 채택한 아주 단순한 단어들에 기초하여 자연적인 의미론적 메타언어(NSM,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언어분석용 언어-역자 주)를 고안해 냈다.<sup>2)</sup>

본인이 접해본 그녀의 작업 중의 예들 가운데서 메타언어는 영어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그녀가 영어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NSM을 세상의 어떤 언어에라도 기초하여 만들 수 있다. 비르쯔비카는 주어진 언어의 사전적 표제어의 의미론적인 요소들을 진술하기 위하여 메타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진술을 타 언어(심지어 동일 언어)의 동족어들에 대한 진술과 비교함으로써, 비르쯔비카는 우리가 그 언어들 중 하나에 현존하고 있고 문화에 묶여진 민속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들을 얻으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예를 들면, 비르쯔비카는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를, 영어에는 폴란드인 특유의

- 
- 1) 비르쯔비카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저 단순히 무작위로 뽑은 목록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영역을 따라 구성된 것이어서 이러한 실험이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한 내용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 2) 비르쯔비카는 의미론적인 어근어에 대한 자신의 목록에 시험적인 성격이 있음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으며, 사실상 그 목록을 수없이 보완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매우 단순한 개념들이 좀더 보편적인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개념이 의미론적으로 더 복잡할수록 문화적으로 특수성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 3) 비르쯔비카는 이 유형의 설명을 실행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는 라보프와 판셀(Labov and Fanshel, 1977)을 보라. 또한 이 유형의 설명이 감성 분석에 적용된 예들을 보려면 마이클 밤베르그(Michael Bamberg)를 보라. 의미론학자 크리프 고다드(Cliff Goddard, 1998)도 자신의 저술에서 자연적인 의미론적 메타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정을 표시하는 폴란드어 **테스크니**(*teskni*)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복합적인 폴란드어 개념을 “단순한 영어 대응어들을 여럿 사용하여”(1992:121)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이 감정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테스크니**(*teskni*)라는 어휘에 대한 비르쯔비카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X *teskni* do Y ---->  
 (X는 Y를 **테스크니** 한다)

X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Y로부터 멀리 있다  
 내가 Y와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어쩐지 좋은 느낌이다  
 나는 지금 Y와 함께 있고 싶다  
 만약 내가 지금 내가 Y와 함께 있다면 나는 어쩐지 좋은 느낌일 것이다  
 나는 지금 Y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X는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다

그녀의 **테스크니**(*teskni*)에 대한 묘사를 보면 영어를 말하는 이들에겐 **향수병**, **갈망하다**, **보고 싶어 하다**, **애타게 그리워하다**, **옛날을 그리워함**(*homesick, long, miss, pine, nostalgia*) 등의 단어가 마음에 그려진다. 하지만 비르쯔비카는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폴란드 단어와는 상이하며 서로 간에도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어떻게 상이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책 제 4 장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에서, 그녀는 필리핀의 일롱고츠(Ilongots)같은 좀더 “외래의” 문화들로부터 취한 문화에 특화되었다고 그녀가 취급하는 수많은 개념들에 대한 진술들을 다룬다. 그녀의 목표는 문화들이 그 개념들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단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개념들을 분석해보면 그 문화들 자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드러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녀는 사전적 차이들이 “상이하고, 문화에 특화된 사고와 느낌의 모델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격려해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 (1992: 124).

그녀가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 중의 하나가 “친구”(friend)의 개념이다. 그녀는 많은 언어들에 “친구”와 닮은 단어가 있음과, 우리는 높은 일치도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이 단어에서 저 단어로 태평스럽게 번역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엄청난 상이점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앵글로 색슨 사람들에게는 “친구”는 그들이 매우 좋아하며, 같이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 함께 그리고 위하여 일들을 하며, 함께

어디에 가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폴란드어 단어는 사뭇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만약 당신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고 동료는 통로 맞은편에서 당근을 팔고 있고, 그리고 당신들 둘이 매일 말하고 정부에 불평하며 생선과 당근 값이 싼 것에 대하여 투덜거리며 여러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 둘은 친구이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그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할 생각을 하거나 해변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족(family)**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본인은 비르쯔비카가 폴란드어 친구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것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남미의 어떤 곳에서 “아미고”(친구, *amigo*)가 의미하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가에 대하여 놀랐다. 그녀는 연장된 가족의 개념을 친구들로 대치함으로써 앵글로 색슨의 친구라는 개념을 이 문화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동일한 흐름에서, 허드슨은, 불어와 영어같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언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상의 불번역성의 수많은 예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예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상이한 언어는 동일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상이한 방식만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될 수 있는 사고들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그리고 흥미로운) 의미에서 상이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외래의” 예들을 조사한 후에, 허드슨은 첨언하기를, “의미론적 상대성이 문화적 변이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힘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언어들 사이에 더 많은 의미론적 변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의미론적 구조 간의 상이점들이 언어학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르쯔비카와 다른 이들의 분석들에서 제안되는 것처럼 정말로 엄청나다면, 이것이 번역 이론에 암시하는 바들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번역 과정에서 동등성의 획득 가능성 관한 어떤 핵심 전제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의심할 여지없이 현재 번역 이론가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번역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고 또한 얻고 있는 것은 동등성보다는 다양한 정도와 유형의 유사성이라는, 전제에 대하여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번역 이론이 어떻게 이처럼 방대한 의미론적 변이를 다룰 수 있을까? 허드슨(Hudson, 1996: 84ff)은, 비록 특별히 번역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상이점들에 대해 어떤 한계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을<sup>4)</sup> 제안한다. “의미들이 원형들과 관련하여 조사된다면”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론적인 상이점들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드슨은, 오크라호마

4) 심리학자 엘리노어 로쉬(Eleanor Rosch)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와 플로리다의 세미놀(Seminole) 인디안들이나 트로브리안 제도(Trobriand Islands) 주민들과 같은 언어공동체들에서는, 하나의 용어(X)가 다음과 같은 모든 관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 (1) 아버지
- (2) 아버지의 형제(영어는 삼촌)
- (3)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영어는 사촌)
- (4)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매의 아들(영어는?)
- (5) 아버지의 자매의 딸의 아들(영어는?)
- (6) 아버지의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영어는?)
- (7)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매의 아들의 아들(영어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영어는 단지 한 단어만 있는 곳에, 이러한 관계들이 (1)번 말고 (X)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 영어에는 (X)를 그 용례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번역할 용어가 없다. 이 용어 (X)는 다른 언어들에 말하는 이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X)의 모든 용례들은 다음 세 가지 단순한 규칙에 의해서 파생될 수 있다.<sup>5)</sup> 영어에도 *father*라는 단어도, **사제** (*priest*) 혹은 **계부** (*step father*)와 같이, 몇몇 예외적인 용례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파생된 형태들 모두를 무시하고 *father*와 (X)의 원초적인 의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의미론적인 변형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가 있지만, 번역자들은 원초적 모형들의 수준에서 번역하도록 거의 제약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허드슨은 언어들에 심지어는 많은 원초적 유형의 개념들에서도 상이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번역 이론은 의미론적인 변형의 문제를 다루는 다른 길을 발견해야만 할 것 같이 보인다.

## 2. 화용론

### 2.1. 상호 협력의 원리

수많은 언어 철학자들과 의미론자들은 **한 제안의 의미**의 논리적 형성 과정이 자연적인 언어로 표현될 때 그에 해당하는 발성의 의미와 종종 불일치한다는 것

5) 세 가지 규칙은 이러하다: A. 한 남자의 여형제는 그의 어머니와 동등하다. B. 동성의 형제들은 서로 동등하다. C. 반쪽 형제들은 온전한 형제들과 동등하다.

을 인식하게 되었다. 영국의 철학자 폴 그라이스(Paul Grice)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적하기를(1975) 자연 언어의 의미 중에 많은 것들이 자연적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사소통하고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는 자연언어의 의미론적 혹은 문장론적 규칙에 있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규칙과 원리”에 있다.

그라이스(Grice)의 접근 방식의 초석은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잘 알려진 상호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CP)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접합점에서 가능한 한 적절하게 그 대화에 어떤 사람이 행하는 공헌으로 구성된다. 그라이스는 “상호 협력”을 하나 이상의 공리가 나타나는 네 가지 일반적인 범주로 정의한다.<sup>6)</sup>

1. 양

1) (거래의 현재적 목적들을 위하여) 당신의 공헌이 요구되는 만큼만 정보 제공적이 되도록 하라

2) 당신의 공헌이 요구되는 것보다 더 정보 제공적이 되도록 하지 말라

2. 질

1) 당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2) 당신이 적절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

3. 관계(관련성이 있도록 하라)

4. 양식

1) 표현의 애매함을 피하라

2) 모호성을 피하라

3) 간결하라(불필요한 상황함을 피하라)

4) 순서 있게 하라

그라이스에 따르면, 화자가 이러한 공리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sup>7)</sup> 첫 번째는, 이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들을 위반하는 것

6) 상관관계 이론(relevance theory)은 그라이스(Grice)의 공리 모두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즉, 적실성이 있어야.

7) 화자가 그라이스의 공리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식에 관한 파솔드(Fasold, 1990: 130)의 설명은 극단적으로, 그리고 그라이스 자신보다 더 친-독자적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파솔드를 아주 근접하여 따랐다.

인데,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화자가 하나의 공리를 피해갈 수 있다. 이것은 드문 일인데, 예를 들면, 발화 행위에 요구되는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강요되었을 경우에, “나의 입술은 봉인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가능성은 공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인데, 한 공리를 따라가는 것이 다른 공리를 위반하는 것이 될 때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라”는 공리를 위반하지 않고 “요구되는 만큼 정보적이 되라”는 공리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이다. 공리들을 다루는 가장 흥미로운 방식은 그것들 중의 하나를 경시하는 것이다. 한 화자가 하나의 공리를 경시하면, 그/그녀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나, 그렇다고 그것을 어겼다고 비난당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위반이 아주 전적으로 확실해서 화자는 그 혹은 그녀가 공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모두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를 “대화의 함의”(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개념으로 이끈다. 대화의 함의들은 화자로 하여금 청자에게 말하여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전달되게 하는 그 무엇이다. 그라이스의 예들 중의 하나를 살펴보자:

[1] A는 확실히 움직이지 않는 차 곁에 서 있고 B가 다가오면서 다음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A: 나는 기름이 떨어졌어.

B: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정비공장이 있어.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B의 반응은 관련성이 없다. 그는 단순히 A에게, 그가 그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상점이 길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A는 B의 공헌이 어찌되었든 관련성이 있으며 그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B의 참여가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비공장이 열려 있고 아마도 기름을 팔고 있을 것이라고 그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A가 조금 걸어가서 길모퉁이의 정비공장에서 기름을 삼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함의이다.

[2] A와 B는 저녁 먹으러 밖으로 나가려는 참에 어디로 가야만 할까 정하려고 한다. 그때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A: 우리 중국 음식 먹으러 갈까?

B: 나는 고혈압이 있어.

B의 반응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그렇게 A의 질문에 대한 대답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A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으러갈까에 대한 예/아니오를 요하는 질문을 한 것인데, B는 A에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대답을 함으로서 관련성의 공리를 무시한다. 그러나 A는 보통 B가 협조적이라고 여기면서 B가 말한 것이 의미가 있게 하는 어떤 길을 찾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중국 음식이 종종 소금이 많고 그 소금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때 함의는 B가 자신은 중국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그의 단정적인 진술은 실제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의사소통이 십수 년 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추론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함의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해주는 추론의 역량은 특정한 발화 사건에 참여하는 자들이 수많은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다는 것이다. 예 [2]에서, 함의가 형성되고 바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양쪽 참여자가 중국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 소금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쁘다는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일한 대화가 완전히 다른 함의를 유발한다는 것은 매우 있음직하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라이스(Grice)의 공리들을 언어학을 넘어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본문의 처음 독자들은 많은 전제들을 그 글을 그들에게 써 보낸 저자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 저자는 그/그녀의 청중에 맞춰서 그 메시지를 조정하고 그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함의의 종류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원천 본문의 번역을 읽는 이들은 다른 배에 타고 있다. 그들이 그 본문으로부터 문화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잠정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원 저자의 전제들을 다소간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저자의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정도에 따라서 그/그녀의 함의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에는 수용언어 독자들이 다다를 수 없는 함의를 깨달아 알도록 돕기 위하여 번역자의 편에 어떤 인자한 개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sup>8)</sup>

어떤 이는 심지어 그라이스의 공리들이 어느 정도로 보편적이냐고 질문할 것

8) 하지만 거트(Gutt, 1991: 89)는 “잘못된 함의(含意)는 일반적으로 설명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음을 발견한다.



이다.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서민의 대화도 동일한 상호협력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경우인가? 분명히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놀 옥스 키난은 말라가시(Malagasy) 화자들(마다가스카르인)은 “당신의 공헌이 요구되는 만큼만 정보적이 되게 하라”라는 공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요구되는 만큼만 정보적”이라는 어구가, 그라이스에 따르면, “화자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만큼의 정보적”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결국은, 어떤 사람을 “상호협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대화 상대의 정보적인 필요를 맞추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말라가시 화자들은 통상적으로 비정보적이다. 옥스 키난은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제안한다. 말라가시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생활은 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다. 그들은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동일한 매일의 활동을 수행하고, 동일한 장소들에 가고, 보통 그들 이웃의 지속적인 이고 끊임없는 감시 하에 살아간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이 정보는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예를 하나 보자:

[3] A가 거리에서 B를 만나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다:

- A: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니?  
 B: 집에나 시장에 가서.

전형적인 서구 사회의 구성원들은 B가, 정보적이어야 한다는 공리를 지키지 않고, 함의를 만들고 있다고 여긴다: 즉, B는 그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옥스 키난은 그와 같은 함의는 말라가시 문화에서는 전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화자들이 정보적인 필요를 만족하게 주는 기대는 기본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옥스 키난은 “정보적이어야 한다”는 공리는 말라가시 사회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말라가시 화자들의 정보적이지 않음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정보의 진실성에 헌신하는 것을 싫어함에 있다. 그들은 “의사소통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말라가시어 화자들이 거짓으로 바뀔까 봐 진정으로 두려워서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사실은 “정보적이어야 한다”와 “네가 적절한 증거가 부족하면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공리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적이어야 한다”는 공리의 무효성조차도 제안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만약에 옥스 키난이 옳다면, [3]에서 B의 반응은 그의 어머니의 움직임이 그가 모르고 있다는 함의를 말라가시 화자들에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상이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상이한 함의를 생성해 낼 수도 있는 의사소통의 예가 될 것이다.

비르쯔비카(1991)도 그라이스가 정의한 유형의 공리들은 친절한 대화에서 “정상적”인 것에 관하여 편향적인 앵글인 중심의(Anglocentric)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의 보편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필자는 이 분야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이한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은 친절한 의사소통을 지배하는 상이한 원리들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 사실은 분명히 번역에 시사하는 바들이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63-64에서 예수께서 산헤드린에 나타나시자,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하여 맹세로 진술하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게 “수 에이파스”(내가 말하였다)였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 대답은 요구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즉, 예수께서 그라이스의 공리들에 상호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NIV의 번역자들을 움직여 다음과 같이 그 대답을 확장시키게 하였다: *Yes, it is as you say*(그래, 내가 말한 대로다.)인데 이것은 좀 더 단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발화 행위 공식에 관한 사안일 것이다).

## 2.2. 발화 행위

화용론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발화 행위의 분석이었다. 언어 철학자인 오스틴(Austin)과 씨얼(Searle)은, 화자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것을 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영어에서 사람들이 하는 사물들 중의 어떤 것은 약속하다, 위협하다, 요청하다, 경고하다, 주문하다, 구걸하다, 확인하다, 부인하다, 제안하다, 불평하다,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설명하다, 주목하다, 사과하다, 비평하다, 규정하다, 조언하다, 묘사하다, 초청하다, 그리고 비난하다 등이다. 영어에는 상이한 발화 행위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와 같은 동사들이 수백 개는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수없이 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면, 프래저는 다음과 같은 발화 행위 분류학을 제안한다:

[4]

A. 단언하는 행위들(고발하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주장하다, 논평하다,

인정하다, 결론짓다)

B. 평가하는 행위들(분석하다, 칭찬하다, 인증하다, 특짓다, 건적하다, 어렵하다, 판단하다)

C.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행위들(받아들이다, 갈채하다, 권고하다, 동의하다, 사과하다, 비난하다)

.....

H. 위탁하는 행위들(받아들이다. 전제하다, 확신하다, 위탁하다, 헌신하다, 약속하다, 떠맡다, 선사하다, 등)

특정한 발화 행위 범주들과 그 수에 관하여 아무런 일치된 의견이 없고, 보편성이 있고 동시에 받아들일 만하게 적은 수의 범주들로 구성되는 어떤 분류법도 제안되는 것이 거의 없다(예를 들면, Goddard, 1998: 143). 언어학적으로 경계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발화 행위의 수나 종류에 있어서 방대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영어에도 과도하게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마야 언어들(과테말라어)에는 매우 적은 동사들로 그럭저럭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말하다, 이야기하다, 묻다).<sup>9)</sup> 카크치켈(Kaqchikel)어는 **위협하다, 경고하다, 인정하다** 등과 비슷한 동사들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발화 행위들을 명명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꼭 그 언어가 그러한 발화 행위를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아마 카크치켈어에서 비록 **경고하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들은 절박한 위협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고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언어가 문화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러한 발화 행위들을 표현하는 명칭들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굼페르츠(Gumperz, 1972: 17 [Wierzbicka, 1991에서 인용])는 말하기를,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다른 담화 유형들과 분리되고 또한 독특한 통합체로 여기는 어떤 의사소통 루트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단위들은 종종 특별한 명칭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하이메스는 “발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민족지학상의 (ethnographic) 기법은 ... 그것들을 명명하는 단어들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비르쓰비카는 발화 행위를 작은 발화 장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장르들(질문, 경고, 위협)에 주어진 명칭들은 당해 언어와 문화에 달려 있는 민속 분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마도 어느 누구도 **세례식 하기, 죄를 사면하기, 칭혼하기** 등과 같은 발화 행위의 언어-특정적 성격을 가지고 논쟁하려 하지는 않

9) 하지만, 마야 언어들에는 단순히 상이한 발화 행위 동사들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예를 들면, 마가렛 디케크만(Margaret Dickekmann)에 의하면(개인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칼텍어(Jakalteq)에는 “강 다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다”라고 사전적으로 풀이된 발화 행위 동사가 하나 있다.

을 것이다. 비르쯔비카는 **약속하기, 주문하기, 경고하기** 등과 같은 발화 행위들이 결코 덜 언어-특정적이지 않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카크치켈(Kaqchikel)어에는 **약속하다**(*promise*)와 가깝게 일치하는 단어가 없다. 그들이 *promise*를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제공하다**(*offer*)를 번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데, 이것은 *promise*보다 낮은 수준의 헌신이 수반된다.

비르쯔비카는 발화 행위 장르들은 두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기술된다고 지적한다: 즉 밖에서부터 혹은 안에서부터. 이 장르들이 밖에서부터 연구된다면, 연구자들은 이 사안들을 “야쿠트족(Yakut)에서의 축복들과 저주들”처럼 논의할 것이다. 그것들이 안으로부터 연구된다면, 우리는 쿠나(Kuna)족에서의 **나마케**(*namakke*), **수마케**(*sunmakke*), **코마케**(*kormakke*)<sup>10</sup> 등과 같은 더 많은 주제들을 만나게 된다. 즉, 어떤 문화의 발화 장르들은 그들 자체의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의 약점은 그것이 한 언어의 민속 분류법을 다른 언어에 강요한다는 점이다. **판단하기, 갈채하기, 사과하기** 등과 같은 단어들은 영어 발화 행위의 민속 분류법에 속하여서, 발화 행위 동사들의 분류법은 문화-특정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문화의 발화 행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영어 발화 행위의 격자(grid)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발화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된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의 약점은 **나마케**(*namakke*)나 **똑똑 두드리기**(*rapping*)같은 용어들이 국외자들에게는 매우 접근하기 힘든 것들이라는 점이다.

루(Louw)와 나이다(Nida)의 『그리스어-영어 사전』(*Greek-English Lexicon*)에는 의사소통의 영역(33부)을 조사하기 위한 흥미로운 실행이 이루어졌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의 수록어들이 영어에는 한 단어의 대응어가 없어서 설명되어야만 하는 그리스어 발화 행위 동사들이다. 예를 들면, “파라디도미”(*paradidomi*)라는 동사는 “종종 시간의 긴 기간을 암시하면서 전통적인 교훈을 전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에 주어진 영어 단어들은 분명히 “전통적인” 혹은 “시간의 긴 기간동안” 등과 같은 특성들이 빠져 있는 단순히 “교훈하다, 가르치다” 등의 용어들이다. 그리스어 동사 ‘스프로니조’(*sphronidzo*)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고 단정한 행실로 행동하도록 교훈하다”라고 정의 된다. 그런데 영어 해석은 “가르치다, 훈련하다”로 되어 있다. 또 동사 ‘엔트레포’(*entrepho*)는 “어떤 분야의 실제적인 지식의 기술을 암시하는 교훈과 훈련을 하다”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제안된 해석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훈련하다, 가르치다”이다. 세

10) 이러한 용어들은 쿠나(Kuna)족에서 사용되는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의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데, 공동체 모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파나마에서 말해지는) 것들이다. 어떤 것이 사용되는가는 거기에 한 제사장만 있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사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동사 모두 “가르치다”로 해석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셋 모두를 “가르치다”로 번역한다면, 우리는 이 세 동사가 모두 서로 다르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들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만약 우리가 해석을 최대한으로 발전시켜서 이것들을 각각 “교훈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로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이 동사들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공을 거둔 것이라곤, 고작 이 동사들을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 번역한 것뿐이다.

그리스어 동사 ‘카우카오마이’(kauchaomai)는 바울의 글에서 흔히 나오는데 영어로 보통 *boast*(자랑하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많은 맥락에서 이 번역은 잘해도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모든 인용은 NRSV임, 한글은 『개역개정』임, 역자주):

1.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롬 2:23)
2. 우리가 ...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2)
3.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롬 5:3)
4.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전 1:31)
5.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고후 1:14)
6.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고후 11:18)
7.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그러나 많은 번역자들은 이 그리스어 발화 행위 동사는 기본적으로 영어 동사 *boast*(자랑하다)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는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왔다. 하지만, *boast*와는 달리 ‘카우카오마이’가 항상 화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꼭 부정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동사를 일관성 있게 *boast*로 번역하는 것은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다. “바울의 글에서의 자랑하기”(“Boasting in the Writings of Paul”)라는 학위 논문을 쓴 조지 데이비스(George Davis)는 ‘카우카오마이’가 종종 신뢰한다(*trust*)는 주제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5:2에서 우리는 자부하다(*take confidence in*)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사적인 대화를 나눔). 이 의미는 *boast*와 사뭇 다르고 발화 행위에 대한 그리스어의 관련 언급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데이빗 베이어(David Baer)는,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것들이 그러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칠십인역에서 이 동사와 이 동사에서 파생한 실명사들은 자주 찬양하다(*praise*)와 기뻐함(*rejoicing*)과 연관이 있는 히브리서 동사들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한다(사적인 대화를 나눔). 어떤 번역자들은 몇몇 문맥에서는 실제로 ‘카우카오마이’를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다. ‘카우카오마이’가 실제로 무슨 뜻이 있는지 간에, 영어에는 흡사한 발화 행위 동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언어들은 그 화자들이 실행하는 발화 행위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흡사한 발화 행위를 지니고 있을 때도 그것들이 사용하는 공식에서도 상이하다. 영어에는 명령법이 있다. 그러므로 “소금 좀 주시겠소”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앵글로 색슨 화자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명령법을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대신에 덜 직접적인 전략을 선호한다. 다양한 강도의 간접 표현들이 있다. ‘소금을 나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까?’ ‘소금을 나에게 건네주시겠습니까?’ ‘소금을 나에게 건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프에 소금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르쯔비카는(1991), 영어와 폴란드어 모두에서 ‘소금 좀 건네주시겠습니까?’라는 말이 다 가능한 반면, 영어에서만 그것은 요청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한다. 영어를 배우고 있던 폴란드인은, 이 문장의 명제적 의미와 동시에 이것이 간접적인 요청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배워야만 했을 것이다. 폴란드인들은 요청을 할 때 질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의 화자들은 그것을 할 때, 그들이 폴란드인에게는 다소 우둔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폴란드인은 광대하게 좀 더 꾸밈없는 명령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화자들에게는 아주 뻔뻔하거나 건방지게 보인다. 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서로에게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보인다. 그리고 폴란드인들은 서로에게 뻔뻔하지 않으며, 단지 알맞게 자기주장이 강한 것이다.

번역자들은, 이러한 두 언어 사이를 번역을 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폴란드인에게 건방지게 나온다면 폴란드어 본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담화가 겁쟁이처럼 다가온다면 이와 같이 영어 본문을 폴란드어로 번역하는 것은 빛나간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산헤드린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 우리에게도 이상하게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판단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단언처럼 이해되었을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번역 팀들은 기본적인 발화 행위 이론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원천 언어의 특정한 발화 행위와 공식들을 수용 언어의 그것들과 비교하는 측면에서도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 3.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은 해당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학문이라고 넓게 정

의될 수 있다. 성서 본문은 사회적 맥락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은 번역 이론, 특별히 성서에 나오는 것들과 같은 다면체적 본문의 경우에 제공할 것이 아주 많을 것이다. 사회언어학은 우리가 화자들을 공동체로 연결하여, 언어 사용역(域)과 방언들로 작게 나누어서, 포괄적인 언어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해결책을 찾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직시어(直示語)(*deixis*)의 본질을 더 잘 반영하도록 언어를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회적 직시어(直示語)의 중요한 분야는, 이것이 성서 언어들에는 분명한 문법적 표지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성서 번역자들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무시되어온 분야이다. “사회적 직시어(直示語)(*deixis*)”라는 어구를 가지고 본인은 대담자들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는 화자와 발화 사건의 현장에는 있지 않은 어떤 사람 간의 개인적(사회적) 관계들의 문법화를 의미하는 어구로 사용한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같은 많은 언어들에는 문법이 소위 “형식주의적”과 “친밀한” 형태의 두 방향으로 갈라져 있다.<sup>11)</sup> 브라운(Brown)과 길만(Gilman)은 “힘과 결속의 대명사들”(“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이라는 세미나 논문에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각 V와 T라는 기호를 사용한다(프랑스어의 vous[격식을 갖춘 2인칭-역자주]와 tu[격이 없는 사이의 2인칭-역자주]에서 따왔다).

스페인어 같은 언어에서 일인칭과 이인칭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이원 관계들은 대칭적 V V 혹은 T T 관계,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회적 계급의 대담자들일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비대칭적인 V T 관계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지대는 없고, 이것은 스페인어와 수많은 다른 언어의 문법의 피할 수 없는 측면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동 언어 번역본(Common Language Version)이 출판되기 전에, 어떤 스페인어 번역 성서도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사실을 고려한 적이 없고, 모든 일인칭/이인칭 관계들을 대칭적인 T T로 표현했고, 그래서 성서 본문에 나오는 거의 모든 대화의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거나 강한 결속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잘못된 인상을 주었다(Ross, 1993). 이러한 실행은 본문 안으로 방대한 양의 왜곡을 끌어들인다.<sup>12)</sup>

11) 이것은 참으로 과도한 단순화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사회적 세력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많은 언어들에서 “공식적인”(formal) 형태는 사회적으로 우월하거나 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친밀한”(familiar) 형태는 사회적으로 열등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런 제도들의 대부분이 시작된 방식이다. 하지만, 브라운과 길만(1960)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들은 중심축이 더 이상 힘 있음/힘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연대성/비연대성이 되는 다른 것들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축은 긴 시간이 기간 동안에는 경쟁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나는 이러한 형태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공식적인”과 “친밀한”이라는 개념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번역하기는 번역자들의 어깨 위에 잔뜩 지워진 수많은 성서적 관계들을 바르게 접근하는 부담을 지운다. 종종 분명한 문맥적인 실마리들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하고 있을 때, 문법적인 표현이 요구되는 분명한 비대칭적인 주인/종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덜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을 단순히 평등화하기보다는 교육받은 추론이 훨씬 낫다.

어떤 언어들에는 번역 상에 있어서 좀 더 도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코트렐(Cotterell)과 터너(Turner)는(1989:237), 멕시코 언어인 믹세어(Mixe)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언덕 위에 혹은 언덕 아래에 사는가에 따라서,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지칭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성서의 문화들은 이런 정보를 문법화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본문이 어떤 단초라도 줄 수 있는 예를 생각하기가 힘들다. 만약 우리가 종종 대담자들의 상대적인 나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언덕 위의 그들의 거주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믹세어에서 모든 이원화된 관계(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관계-역자 주)는 번역자들에게 정확히 그 정보에 기초해서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 4. 담화분석

담화분석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형식적인 접근 방법들과는 달리 기록되었거나 말하여졌거나 간에 실제 본문에서 직접 그 자료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은 능력이 아니라 실행에 그 기초를 둔다. 이 방식은 또한 의미를 위해서 단지의 미론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언어의 기능적인 상이점도 인식하며 또한 문법적인 코드만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으로서 발화의 구조도 살핀다는 의미이다(Schiffirin, 1994).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어떤 길이의 담화도 살피면서 문장보다 더 큰 언어의 덩어리가 문법적으로 적실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코트렐(Cotterell)과 터너(Turner)는 담화를 이렇게 기술한다:

… 담화는 시작, 중간, 그리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끝과 혼돈될

12) 동남아시아의 몇몇 언어들에서는 사회적 직시어(直示語)의 표현이, 상당량의 사전적 변환과 더 많은 상대적 지위의 단계들이 포함하게 되어서, 대단히 더 복잡하다. 나는 그러한 언어들로 번역할 때 이런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모르겠다.



수 없으며, 무작위로 서로 바뀌어질 수 없는 이 부분들도 각각 합리적인 담화를 지니고 있다. 사실, 담화는 일관성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는데, 초-문장적 구조의 일관성과 주제의 일관성이다. 말하자면 어떤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인데, 문법적 구조와 의미 둘 다를 포함하는 관계이다.

점점 더 많은 언어학자들이 문자만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 언어 연구 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문장 언어학에 대한 증대하는 거부 반응에 대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실제 발생한 어떤 길이의 문장에서 일어난 많은 것은 이전 문장들에서 일어났던 것과 심지어는 다음 문장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기능주의자들이 한 문맥에서 기꺼이 자원하여 문장을 넘어서서까지 바라보고 문법적인 구조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은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형식주의 언어학자들이 던지는 질문들과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촘스키와 그의 제자들이 수동태 문장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즉, 무엇이 그 심층구조인가)에 관심을 두는 반면, 담화 분석가들은, 문법적인 태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어도, 왜 화자가 특정한 문맥에서 다른 태가 아닌 수동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이 특별한 문맥에서 그 수동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거의 항상 그 수동태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밖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심지어 훌륭한 문장 언어학을 하려 해도, 조셉 그림스(Joseph Grimes, 1975)가 말한 대로, 그 문장 자체의 경계를 넘어 뛰어 넘어 “밖을 응시해야”(peer out)만 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다.

적어도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문장의 단계에서는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문자 담화의 무수한 구조적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은 그들이 참여하는 사건들 그리고 동일한 참여자들의 다른 언급들과도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Grimes, 1975), 참여자들이 한 담화를 거처가는 길들은 언어들마다 현저하게 다르다. 문법적인 수단들에 의하여 참여자들은 주제로 소개되어, 한동안 머무르다가는 버려지고, 종종 후에 다시 소개되기도 한다. 번역자는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 둘 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들을 아주 잘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들 문장들에만 제한하는 이론에 의하여 속박되어 있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신중하게 연구될 수도 없다.

담화 분석자들은 오랫동안,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지지하는 정보는 배경으로 깔려 있는 반면, 이야기 담화에서 어떤 재료 즉 스토리 라인의 주요 사건들은 전경으로 깔려 있다고 알고 있었다.<sup>13)</sup> 자료들은 주로 문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전

경으로 되어지거나 배경으로 된다. 하지만 이 둘이 구별되게 하는 몇몇 다른 방법들도 있다. 예를 들면, 전경화된 본문은 종종 성격상 정확한 행동 사건들을 향하는 경향이 있고, 이야기에서 배경화된 부분은 보통 좀더 상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전경화된 사건들은 보통은 시간대 순으로 배열되는데, 배경화된 사건들은 그렇지 않다.

문법적으로 전경과 배경을 많은 전략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호퍼(1979)에 의하여 기술되었다. 예를 들면, 스와힐리어에서, 이야기의 처음에 최초의 시제 표시가 있고 보통은 과거적 접사 -리(-*li*-)가 오는데, 이것은 이어 나오는 담화의 시제를 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지점부터, 주된 이야기 선을 구성하고 그래서 전경이 되는 사건들은 접사 -카(-*ka*) 표시가 붙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설명적이거나 동시발생적인 다른 사건들은 -키(-*ki*-)와 같은 다른 동사적 접사들로 표시된다. 이와 비슷하게 호퍼는 로망스어 계통의 언어들에서는 동사의 상(相)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경화와 배경화를 표시한다. 이야기의 중심 사건들은 완료 상(相)으로 나타나고, 배경적 자료는 지속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나타난다. 고대 영어에서와 같이 몇몇 아프리카 언어에서는 단어의 순서, 특별히 동사와 목적어의 순서는 시제-동사의 상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경과 배경의 어순 전략이 있을 법도 하다.

이 모든 전략들은, 간-언어학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한다손 치더라도, 이야기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야기에 필수적인 것들을 지적하면서, 청자로 하여금 그/그녀의 방식대로 담화를 통과하여 나가도록 돕는다. 게다가 이러한 전략들은 이야기 담화 구조의 중심 부분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들은 번역에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번역자들이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둘 다의 전경화와 배경화의 전략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어야만 한다.<sup>14)</sup> 그리고 번역자가 번역을 시작할 때 담화의 전경화/배경화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global”) 관점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상이한 언어들(문화들)은 담화에서 시간을 서로 상이하게 다룬다. 예를 들면, 그리스어에서는 담화의 사건들이 연대기적인 순서를 고집하면서 선형적인 양상(a linear fashion)으로 진술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그리스어의 너그러움의 예로 종종 인용되는 문단은 마태복음 6:14 이하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언어들(문화들)은 엄격한 선형적인 순서의 구조를 고집하고 있어서, 만약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정렬된다면 아마도 본문들을 어떤 언어로도 “추정하기”(compute)가

13) 실제로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동일시하는 자료, 정착시키는 자료, 부대적인 자료, 회상하는 자료 등도 있을 수 있다(Grimes, 1975와 Hollenbach et al., 1998을 보라).

14) 히브리어로 전경과 배경의 대조를 요약한 것은, Marchese Zogbo, 1988을 보라.

더 쉽다. 번역자가 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재배열하거나, 독자들이 사건들의 적절한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면 임시적인 표시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번역자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원천 본문의 임시적인 구조와 수용 본문의 임시적인 요구사항들 둘 다와 맞붙어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 같다.

담화 분석자들은 또한 어떤 본문의 해석을 결정하는 구도와 그 용량에 대한 연구에 공헌하였다. 예를 들면, 브라운(Brown)과 윌(Yule)은 두 가지 상이한 제목이 주어질 때 두 가지 급진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의 예를 들고 있다. 이들의 샘플 본문이 고안되었다손 치더라도, *Granted their sample text is contrived*. 그러나 제목은 부인할 수 없게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탕자’(‘The prodigal son’)라는 제목이 주어진 비유는 독자로 하여금 집을 떠나 자신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다. ‘잃어버린 아들’(‘The lost son’)이라는 제목이 주어진 동일한 비유는 아마도 독자들이 비유를 앞에 나온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들과 연계하도록 이끌 것이다. 혹은 이 비유에 ‘용서하는 아버지’(‘The forgiving father’)라는 제목이 붙는다면, 독자는 이야기에 나오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해주는 아버지에게 더 쉽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마르체스 조그보는 담화 분석을 번역에 적용하는 것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아주 유용한 논문을 썼다. 거기서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하여 아주 넓고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흥미 있는 독자는 번역 이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언어학의 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위하여 그녀의 논문을 보도록 권하고 싶다.

## 5. 정보 구조

이 분야는 공간 제한과 이 분야의 내재적인 복잡성 때문에 이 주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정보 구조에 대한 연구가 번역자들에게 무엇이 유용한지 그리고 왜 이것을 번역자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비록 꼭 이 이름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보구조는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꽤 오랫동안 연구되었다. 그러나 람브레히트(Lambrecht)의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이라는 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오늘날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 되었다. 람브레히트의 접근법은 발

린(Van Valin)과 라폴라(LaPolla)에 의하여 그들의 기념비적인 책 『구문론』(Syntax, 1997)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모든 명제는 다수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렇게 상이한 방식들은 서로 상호 교환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위의 담화에 의하여 결정된다. 화자는 언어학적인 맥락, 청자의 전제, 자신이 상상하는 의사소통 필요 등을 고려하여 명제의 구문적인 구조를 수용자에게 맞춘다. 말하는 동시에, 주어진 명사구의 지시 대상물이 청중에게 알려지는가? 혹은 그것은 새로운 정보인가?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 지시 대상물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때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그 지시 대상물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가 그 지시 대상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그 지시 대상물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지라도, 청자가 지시 대상물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장 안에서 지시 대상물의 지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제(오래된 정보)로 고려될 수 있을까? 혹은 발화의 시간에 그것이 그 담화 안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청자에게 맞춘다는 사실은 번역자들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된다. 번역자의 청중은 원 저자의 청중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의 청중처럼 동일한 전제, 이론, 그리고 의사소통 전략 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동일한 함축적인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그들의 본문을 자신들의 청중에 맞게 원천 본문의 그것과는 뚜렷이 구별되게 번안할 필요는 있음직한 일이다.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에서 두 가지 중심 요소들은 주제(topic)와 초점(focus)이다. 램브레히트는 이 두 가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오히려 관계적으로 정의한다. 더 나아가, 그는 이것들을 신규 정보의 전통적인 개념들과 연결시키지도 않는다. 절(節)의 첫 번째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주제는 ‘절대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것은 그 문장이 무엇인가이다. 초점은 전제와 확인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정보의 조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꼭 절, 즉 술부의 어떤 조각과 연결될 필요도 없다. 램브레히트는 세 개의 상이한 초점의 차원을 구별해 냈고, 이것들을 예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들을 사용하고 있다. 초점 강세를 지닌 단어들은 **대문자**(밑줄, 역자 주)로 되어있다. ‘좁은 초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요소가 초점에 있을 경우이다.

질문: 나는 너의 차가 고장 났다고 들었다.

대답: 내 차가 고장 났어.

그래서 두 종류의 ‘넓은 초점’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술부 초점이다:

질문: 네 차가 어떻게 됐어?

대답: 고장 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초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장 전체가 초점에 있다:

질문: 무슨 일이나?

대답: 내 차가 고장 났어.

문장 초점에서는, 문장 전체가 초점에 있기 때문에, 주제가 없다.

람브레히트는 영어, 불어, 이태리어, 그리고 일본어 등에서 이러한 상이한 종류의 초점을 다루는 방식을 비교하고, 그 언어들에서 모두 이를 상이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운율적인 돌출 기법(예를 들면, 강세)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표시된 구문론적인 구조도 다양하게 사용한다. 번역자는 원천 본문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초점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원천 언어와 대상 언어에서 모두 어떻게 부호화 되었는가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초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강세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시청각 번역에도 중요하게 암시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정보 구조와 관련하여 어찌면 여기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람브레히트의 책들을 읽거나, 혹은 반 발린과 라폴라의 얇은 책을 읽고, 정보 구조 연구가 우리의 번역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풍성하게 해 줄 수 있을 지를 탐구할 것을 권하고 싶다.

## 6. 결론

언어학은 20세기에 그 영역들을 깨달아가고 분석의 도구들을 발전시키면서 성서번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 세기 내내, 언어를 음성에서 문장에 이르기까지 연구할 수 있는 점점 정교해진 도구들이 발전되었다: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그리고 구문론 등이다. 20세기의 마지막 십수 년에는 분석의 차원이 좀 더 높아져서 본문들과 그것들이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에 관한 다양한

하위 계층 구조들의 기능을 식별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예표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담화 분석, 그리고 비교 문화 의미론 등과 같은 언어학의 더 새로운 세부 분야들이 모국어 번역자들에게든 그들과 함께 일하는 상담역들에게든 간에 성서 번역 분야에서 엄청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공하였다. 간과된다면 번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학문분야들이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간의 근본적인 차이들에 대한 번역자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주요어>

의미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담화 분석, 정보 구조, 번역

<Abstract>

## **The Contribution of Linguistics to Bible Translation Yesterday and Today: Part 2**

Dr. Ronald Ross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In the paper we look at some of the subdisciplines that have sprung out of linguistics and contributed in changing the role of linguistics in Bible translation. Most of these subdisciplines have in common that they do not limit their view of language to the sentence. Rather they frequently analyse larger pieces of text. In the section on cross-cultural semantics it is argued that languages do not share a common semantic structure, which implies that most of their words do not mean the exactly same thing as the words of other languages. And this, of cours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In the section on pragmatics, we look at only two areas within this large field: the cooperation principle and speech acts, two of the first areas that pragmatics dealt with. In the case of sociolinguistics, we look specifically at social deixis, or the ways in whic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expressed grammatically in some languages. Discourse analysts study the structure of discourses or texts, the ways in which participants and their roles are tracked. They also examine the ways that speakers of different languages handle foregrounding and backgrounding and they how they manage time. Finally, information structure analyses the variety of ways speakers structure propositions based on the presumed communication needs of the listener. This has to do with the information that is present in the linguistic context or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listener's presuppositions, etc.